

한라시론



문 영 인
제주농업생명과학박사연구회

지난달 하순 뉴스를 통해서 본 네 팔의 아침은 맑은 날씨였다. 마을 중심을 흐르는 작은 강을 따라 엄청나게 큰 물이 바위와 통나무를 끌고 지나가면서 건물과 다리를 무너뜨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 사람들이 피하지 못하고 시야에서 사라지는 장면을 보게 됐다. 이번 대 홍수로 운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빈다. 빙하가 녹는 속도가 빨라져 대 홍수가 발생했는데 네 팔이 미친 영향은 미미하나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은 네팔이고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다른 나라 때

기후위기의 피해 네팔대홍수

문이라고 정부가 주장하고 있다. 산업화에 의한 온실가스배출량이 늘면서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것이 기후변화이고 대홍수의 원인이라고 한다. 네팔은 높은 산이 많은 나라로 세계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비롯해 열 번째 높은 산나라이다. 이곳은 유명 산악인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찾았던 곳으로 잘 알려졌으나 일반국민들은 최근 들어서야 익숙해진 나라다. 현재 제주도내 거주 중인 외국인은 중국인이 가장 많고 그다음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이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26년 6월 통계월보에 의하면 제주도내 외국인중 네팔인은 네 번째로 많은 1,857명으로 3년 전 보다 30% 증가해 먼저 온 분들의 성실함이 인정되면서 취업자 입국자가 많아진 것 같다.

기후변화란 지구촌 평균온도가 100년 전보다 1.3℃ 상승했고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온도상승의 원인은 산업화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석탄, 석유, 가스를 태우면서 배출되는 물질들이 주원인이다. 농업분야에서는 식물이 자라면서 탄소를 흡수이용하고 산소를 생산하는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화학비료사용과 가축을 기르면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기도 한다. 탄소 배출이 많은 부분을 세계전체로 보면 에너지 생산, 교통, 산업활동이며, 농업 부분도 14%정도 차지한다. 제주도민의 생활 부분에서도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아주 많고 농업부분도 가축사육과 분뇨처리과정 그리고 질소비료 사용량도 증가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업인으로서 농작물을 잘 키우

면서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폐농자재는 반듯이 분리수거를 해 농약포장지, 비료포대, 비닐류는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하고, 감귤나무와 같은 나무를 가지치기한 것은 파쇄해 나무 밑에 깔아주면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고 가뭄에 수분증발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화학비료 중에 질소함량이 많은 비료 사용량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작물이 흡수하지 남은 양이 물에 씻겨 나가거나 공중으로 가스로 배출되면서 기온상승원인이 되기 때문에 과다한 사용을 하지 말고, 도민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해 자동차 배기가스의 발생량 감소에도 노력하는 등 개인이 할 수 있는 소소한 일을 실천해 평균기온상승인 기후위기를 억제하는 큰일에 동참해야 하겠다.

사설

항공 좌석난도 못 챙기는 민생경제 상황실

제주도가 항공 좌석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했으나 좌석난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어 공언이 실언이 되고 있다. 늘어나야 할 추석연휴 항공편이 줄어들어 귀성객들이 큰 불편을 겪게 돼서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제주 기점 운항편수는 국제선 포함 1일 평균 510편이다. 하루 평균 8만7600여명이 제주공항을 이용하게 된다. 운항편수는 지난해 518편에 비해 8편이 줄었다. 또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에는 시간당 최대 35회의 슬롯이 배정된 횟수가 6회였으나 올해는 절반 수준인 3회에 그치고 있다. 임시편 투입도 고작 18편에 그쳐 제주도가 항공권 확보를 위해 뭇했는지 도민적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황금노선인 김포~제주노선의 경우 추석연휴

초반인 23~24일까지 예약이 조기 마감돼 귀성객들이 애를 먹고 있다. 공급좌석이 수요에 당초 미치지 못해 제주노선 항공권 가격은 편도 13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호가하고 있다. 위성곤 지사는 지난달 말 민생경제 상황실 관광분야 회의를 열고 항공좌석 확보와 내국인 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제주항공좌석 공급 안정화 TF'를 가동했다. 그런데 대목인 추석연휴 항공편이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되레 감소했다. 심지어 연휴기간 임시편 투입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민생경제 상황실의 역할과 TF팀의 존재 이유가 대해 의문을 안 가질 수 없다. 위성곤 지사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성과로 도민에게 답해야 한다.

열린마당

주정차금지구역 확대, 교통난 해소 위한 변화



강 지 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야)

제주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금지구역 4곳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운전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주정차금지구역이 확대되면 운전자들은 차량을 잠시 세워 둘 공간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상가를 방문하거나 물건을 옮겨야 하는 경우 주차 공간을 찾기 위

해 주변을 여러 번 돌아다녀야 할 수도 있다. 새롭게 지정된 금지구역을 알지 못한 운전자들은 단속이나 과태료에 대한 부담도 느낄 수 있다. 교통질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이 변화된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주정차금지구역 확대와 함께 공영주차장과 공공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주차 가능한 공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시스템과 충분한 홍보도 마련해야 한다. 상가 이용자를 위해 일정 시간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운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시의 주정차금지구역 확대가 시민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뉴스-in

‘민생이음 시민간담회’ 첫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논의
○...이상봉 제주시장이 추석을 앞뉜 16일 산지천1 골목형상점가에서 상인회와 함께 '민생이음 시민간담회'를 갖고 골목형상점이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지역 내 소비 촉진, 상점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 상인회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공간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며 인근 노후 건축물을 정비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제안. 이 시장은 "취임 후 첫 시민간담회를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골목상권에서 시작하게 뜻깊다"며 "현장에서 들은 소중한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전기차 안심 이용 캠페인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청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서 홍보물 부착을 시작으로 도 소방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전기차 안심 이용 캠페인'에 나서 관심. 이번 캠페인은 제주가 전기차 전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만큼 도민과 관광객의 일상 속 전기차 안전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연중 실시되며, 도가 관리하는 도내 공공 급속충전기에 '전기차 안심 이용 가이드' 스티커를 붙여 운전자가 충전 과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충전 습관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 조선희 제주도 기후에너지국장은 "안심하고 전기차를 탈 수 있는 안전문화가 자리 잡도록 관계기관과 협력 방안을 계속 찾아가겠다"고 당부. 이태윤기자

제주관광 숫자 너머 질적 지표 제시해야

제주도의 관광 정책 성과 평가가 여전히 양적 지표에 기울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도의회에서는 제주도가 2025년 관광 정책 목표를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질적 성장 도모'로 설정했지만 공식 성과 지표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질었다. 관광콘텐츠 17개소 100%, 마이스(MICE) 204건 102%, 고부가가치 특수목적 상품 6건 100% 등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했으나 그 지표로는 관광객 체류 기간, 소비액, 경제효과 등을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도의회에선 제주도의 정책 목표는 '질적 성장'인데 성적표는 '양적 지표'에 치우쳐 있다고 꼬집었다. 고부가가치 분야

마저 상품 개수를 세는 등 사업추진 실적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관광객 실태 조사를 통해 체류 시간, 소비 비용, 만족도, 여행 형태 등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를 성과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주문했다. 제주도는 그간 관광객 수 확대보다 얼마나 오래 깊이 머무는가에 초점을 맞춰 관광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올 들어서도 계절에 상관없이 제주에 체류하며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소비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제주 고유의 가치가 관광 소비와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고 비수기가 없는 사계절 관광을 꾀하려면 그에 맞춘 성과 평가 지표를 설계하고 이를 정책과 연계하도록 해야 한다. 숫자 너머의 제주 관광 현실을 들여다보고 해법을 찾는 일, 말에 그쳐선 안 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묘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생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 주 토 박 이

제주산담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평인
2009 백도라지 평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사)한국예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 장 의 사

616-08-85402